

## 레이몬드 언윈의 쿼드앵글 유형 해석 An Analysis of the Quadrangle Type of Raymond Unwin

손세욱\*

Sohn, Seiwook

김경완\*\*

Kim, Kyoungwan

### Abstract

This paper has attempted to analyze the site planning theories of Raymond Unwin (1863-1940), who is called the father of British town planning. A prominent contribution of his was to establish both the site planning of garden suburb and urban housing style in British type. Here it attempts to analyze how he greatly and firmly established the concept of Housing Group, and how he got this the concept from the life and spatial composition of villages. It could be pointed out that the main factors of the Unwin theory are social mixture, creation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informal landscape design, and that the small enclosed space with plenty of amenity is his main theme. It is pointed out that the Unwin theory is composed of recognizing urban life as totality, and group planning theory, and that he definitely originated a new technique: Housing Group. It is analyzed that the syntactic relations between the group planning theory and housing designs in the English garden suburbs are epitomized in Hampstead Garden Suburb, Middlesex.

Keywords : Raymond Unwin, village, garden suburb, quadrangle, Hampstead Garden Suburb

주요어 : 레이몬드 언윈, 마을, 전원교외, 쿼드앵글, 햄스테드 전원교외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은 대도시내 인구 증가와 과밀화로 일찍부터 교외화를 겪게 되었다<sup>1)</sup>. 영국에서는 17세기 후반 여러 가지 기계가 발명되고, 그것이 증기기관과 결합되어 공장제가 확립된다. 그것과 병행하여 기계를 도입한 대규모 농업이 흥하여,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직업을 잃어 도시에 흘러 들어와 새롭게 만들어진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1846년 곡식법폐지에 따라 지주인 귀족계급 지배력에 약화하기 시작하여, 공장 경영자 즉 산업 자본가를 필두로 하는 중류계급이 대두하여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를 짊어질 정

도로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구조 변화는 도시구조 그 자체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도시 속에는 노동자계급의 슬럼이 태어나기도 했지만, 중류계급 자들은 매연으로 더럽혀진 도시를 떠나 전원으로 이주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당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철도가 중류계급 자들의 도시유출을 조장하였다. 물론 중류계급 자들은 도시 내에 직업을 갖고 있기에, 새로운 주거는 철도로 통근 가능한 범위에서 전원이어야 했다. 또한 도시와 전원 중간에 위치하여 도시 편리함과 전원의 쾌적함을 향유할 수 있는 교외라는 사고방식이 정착해 나가게 되었다.

1860년부터 증산층을 위한 주택건설이 폭발하면서 대도시 외곽의 교외화도 현저해 졌다. 그래서 교외 주택지의 계획적 제어의 필요성이 생기고, 근대 도

\*정회원,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큐슈공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R05-2002-000-01095-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Cherry, G. E., Cities and Plans, Edward Arnold, 1988. pp.16-30. 참조.

시계획이 탄생했다. 영국 근대 도시계획은 확대하는 교외지역을 어떻게 쾌적함이 넘치는 곳으로 하는지를 목적으로 '1909년 주택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되었다<sup>2)</sup>고 한다. 이 법률의 형성, 대도시 교외에서 보는 양호한 주택지의 대부분, 그리고 영국의 교외 도시형 주택 양식은 언윈(Unwin Raymond, 1863-1940)<sup>3)</sup>에 의해 시작되었다.

언윈은 현대 도시계획의 빛나는 개척자였으며, 20세기 초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통제하는 낡은 수법을 새로운 공적 제어 수법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주택 개혁이념을 20세기 중앙정부의 공공 주택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노동자 계층을 위해 건강, 복지, 쾌적성(amenity)을 갖춘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언윈은 가로를 따라 연결된 조례 테라스(by-law terrace) 주택을 저밀도인 에이커당 12호에 정원이 딸린 2호 연립주택(Semi-detached house)으로 바꾸었다. 언윈은 그의 동료 파커(Barry Parker)와 함께 하워드(E. Howard)의 골격에 옷을 입혀 하워드의 이상을 실현하였으며, 주거단지 계획과 교외 주거의 양식을 확립하여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세기 도시형 주거양식의 한 부분이 '영국 도시계획의 아버지'<sup>4)</sup>라고 칭해지는 언윈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에 주목하고, 그의 주택지 계획 기법<sup>5)</sup>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그가 구상하였던 사회적 소집단을 형성하는 에워싸는 주택배치라는 계획기법이 초기 부정형 공동광장을 둘러싸는 住棟 配置를 시작으로 정형화해 나가면서, 주동이 규칙적으로 세워지는 도시형 쿼드앵글(quadrangle)<sup>6)</sup>으로 발전되는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쿼드앵글의 유형들을 해석하려 한다.

##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영국 주택지계획에서 언윈의 공헌 중에 하나는 집단으로 계획한 공간 디자인의 독창성에 있다. 각 주택의 디자인은 전통적 양식을 고수하면서, 각 주택들이 모여 집단이 되었을 때 공간 구성으로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 즉 개별 공간은 계획 의지에 따라 제어된 집단 공간 속에 위치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으며, 그곳에서 공간 질서도 생긴다는 인식이다. 언윈의 집단 계획 이론은 주택지 설계에 있어서 10~20채의 주택을 공동광장으로 에워싸 집단으로 계획하고, 공동광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상호 작용하게 하여 공동체 형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계획방법은 영국 주택지 설계방법으로 정착되었고, 그의 저서 출판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본 연구는 언윈이 구상하였던 에워싼 주택 배치기법이 착안된 배경으로 마을에서 생활과 공간에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또 그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교외주택지의 모습으로 '마을'을 상정(想定)했는지를 분명히 한다. 또한 마을내 중요한 생활 공간인 공동광장(village green)이 초기 부정형 공동광장을 둘러싸는 住棟 配置에서 정형화해 나가면서 장방형 공동광장이 변화되고, 그 외곽을 따라 주동이 규칙적으로 세워지는 도시형 쿼드앵글(quadrangle)으로 발전되는 전개과정을 주목한다. 언윈에게 쿼드앵글은 촌락 내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생활의 표현이었으며, 새로운 가로나 교외에 쿼드앵글을 건설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생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주저서 '도시계획의 실천(Town Planning in Practice, 1909년 출판)<sup>7)</sup>'에서 제안된

2) W. L. Creese, The Search for Environment, The Press, 1966. p.249.

3) 그는 1931년에서 1933년까지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회장을 역임했으며, 1932년에는 작위를 수여 받았다. 1937년에는 왕립황금메달(The Royal Gold Medal)을 받았다. 또한 프라하, 맨체스터, 하버드대학 등에서 명예학위를 받았다.

4) G. Ashworth, Encyclopedia of Planning. Barie & Jenkins, 1973, pp.111-112.

5) 언윈의 계획기법을 다룬 대표적 서적은 다음과 같다. W. L. Creese, The Search for Environment, The Press, 1966. W. L. Creese, ed., The Legacy of Raymond Unwin; A Human Pattern for Panning, The MIT Press, 1967. 등이 있다.

6) 쿼드앵글(quadrangle)이란, 기하학으로 사각모양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건축으로서는, 중정의 네 변을 둘러싼 口자형 평면, 두개 L을 ㄷ型 平面를 가진 건물이나 건물군을 가리킨다. 건물군으로서 쿼드앵글은 중세수도원에 유래하여, 영국에서는 수도원 해체이후도 병원, 구빈원, 대학건물 등에 중정형 평면이 답습된다.

7) R. Unwin, Town Planning in Practice, T. Fisher Unwin, 1909(본 연구는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년 판에 의한다) 이 고전은 불어·독일어·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있다. 또 그의 주요 논문은 다음의 책으로 정리되어 있다. W. L. Creese, ed., The Legacy of Raymond Unwin; A Human Pattern for Panning, The MIT Press, 1967.

여러 실례들을 독해하면서, 레치워스, 햄스테드 전원 도시에서 적용되어 있는 여러 쿼드앵글 모델의 해석을 통해 그의 교외 주택지 계획의 한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 II. 교외 주택지 계획의 이미지로서 마을

언윈은 영국 사회에서 20세기 초 기본적으로 해체하여 버린 농촌 공동체(village community)를 그대로 재건하고자 하는 복고주의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대도시 주변에 존재했던 중세적 농촌 공동체인 마을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바람직한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마을에서 보이는 작은 집단관계이었다. 여기서 작은 집단이란 마을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가 유지되는 작은 단위의 사회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효과적으로 개개인들이 공동할 수 있기 위한 집단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주민들은 직접 서로 알고 만날 수 있고, 또 강한 개인적 관계도 가능하다”<sup>8)</sup>이라고 기술하면서 주택지내 작은 집단의 구성을 강조하였다.

언윈은 바람직한 공동생활의 한 특징으로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계층의 혼합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도시계획, 단지 계획을 생각할 것 없이, 근년 영국의 도시에서 현저한 계층사이 완전한 주거분리는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규모와 타입의 주택으로 넓은 지역을 구성하는 편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선입관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나라 전통에서 보아도 완전한 주거분리는 매우 이질적인 상황이다.”<sup>9)</sup>라고 하였다. 즉 그 당시 대도시 내에 건설되는 단일 계층의 주택지를 비판하면서, 적절히 계층을 혼합하여 개발할 것을 주장한다.

실제 영국 사회에 볼 수 있는 한 지붕 아래에서 주인과 하인이 동거하고 있는 모습은 그 당시 마을에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마을 공동광장(village green)에서는 지주 아들도 농가의 아들과 함께 놀고 있다. 지주도 소작인도, 목사도 신자도, 상인도 고객도, 주인도 하

인도, 농민도 노동자도, 의사도 환자도, 모두 직접 결부되고, 공동 이해를 가지고, 커뮤니티 생활망으로 결합하고 있다.”<sup>10)</sup> 이렇게 계층이 혼합된 생활 속에서 그가 강조한 점은 사람들 사이에 친밀한 사회관계이며, 이 관계는 작은 집단에서 보다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윈은 마을에서 보이는 바람직한 생활의 특징으로 ‘소집단’과 ‘계층 혼합’에 두면서, 교외 주택지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마을의 공간 구성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특히 마을 공동 광장을 그의 교외 주택지 속에서 재생하고 있다. 오래된 마을에 보이는 공동 광장(village green)을 둘러싸는 住棟配置에 대하여, 그는 “부지전체가 공동 소유되어 있는 경우에 그린(green)의 주위에 주택을 집합하여 아이를 위한 놀이터, 볼링, 크리켓, 테니스용의 잔디밭, 노인을 위한 장식정원, 주민들을 위하여 공동 채소밭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략) 이러한 공동 광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은 질서 있는 커뮤니티의 표현이 우리들의 교외에 도입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질서 있는 커뮤니티는 영국의 옛 마을 속에 있다.”<sup>11)</sup>라고 하면서 새로운 교외주택지내에 계획하려 하였다.

최초의 저서 ‘주거건설의 예술(The Art of Building a Home)’에 수록된 마을계획안에는 중앙에 사다리꼴 모양의 빌리지 그린<sup>12)</sup>이 있으며, 住棟은 일조나 조망을 배려하면서 ㄷ글자형으로 둘러싸 배치하고 있다. 그는 당시 지어졌던 획일적 일자형의 건축 조례 주택지를 비판하면서, 이 빌리지 그린을 에워싸고 주택을 그룹핑하는 것이 사회적 소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며, 私的空間과 公的空間의 사이에 있는 중간적 공용 공간으로, 적당한 공간의 ‘폐쇄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 활동 장소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두었다.

반면에 건축 조례 주택지의 공간 구성은 사회적 소집단을 형성하려는 공간 기법이 결여되고 있고, 공적공간(도로)과 사적공간(택지)으로 나눈 공간 이분법이고, 선형의 개방된 도로 망의 구성으로 ‘단편 공간’이라고 하는 감각<sup>13)</sup>은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

8) R. Unwin "Nothing Gained by Over-crowding!" in W. L. Creese, ed. op., cit. p110.

9) R. Unwin, Town Planning in Practice, T. Fisher, 1909, p. 249.

10) R. Unwin "Housing and Town Planning Lectures at Columbia University" Lecture, 1936, p.184.과 p.173.

11) R. Unwin, The Art of Building a Home, 1901, p49.

교할 수 있다<그림 1<sup>12)</sup>>. 즉 언윈은 19세기 대도시 내 과밀 거주인 슬럼이나 투기적 건축업자들에 의한 건축 조례 주택지 상황의 극복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주택지 모습을 창조하려 하였다.

또 그는 ‘주거건설의 예술(The Art of Building a Home)’에서, ‘마을에서 강한 사회관계는 마을의 경관을 낱게 하는 질서 감각으로 나타난다.’<sup>13)</sup> 하면서 가로경관을 지적하였다. 특히 가로변에 주택 규모를 크고 작은 것으로 혼합 개발하여 ‘계층 혼합’을 꾀하고, 그 결과 가로 경관에 변화와 통일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림 2>

언윈은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 조례 주택지의 경관을 비판하면서, 주택 규모를 크고 작은 것으로 혼합(계층 혼합)하여 가로 경관의 변화를 강조하고, 새로운 가로 경관의 매력을 이끌어 내려했다. <그림 3>과 같이 건축선과 도로선을 분리하여 가로의 경관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동 광장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퇴한 주택의 앞뜰 부분에 작은 공동공간을 두고, 이곳에 에워쌈의 느낌을 만들어 내었다. 이후 이 기법은 영국에 계획된 수많은 주택지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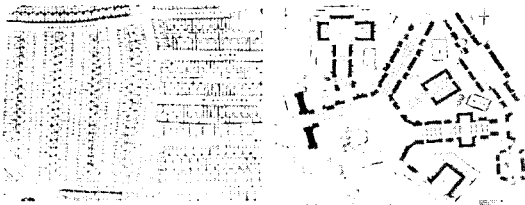


그림 1. 조례주택지와 햄스테드 교외주택지의 비교



그림 2. 케루지 촌의 가로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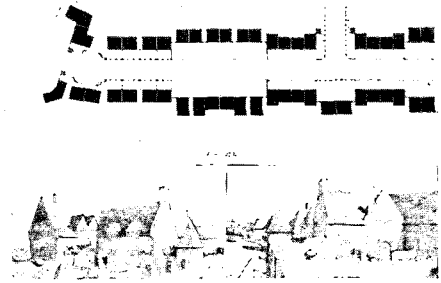


그림 3. 도로선과 건축선의 분리 (Hamstead 전원 교외)

### III. 교외주택지 이미지의 구체화-마을공동광장

언윈은 마을의 이미지를 적극 대도시 근교에 건설 되는 주택지 계획에 반영하려 했으며, 마을의 이미지 중에서도 마을 공동 광장과 이를 둘러싸는 주택 군에 주목하고, 계획 기법으로 재구성 하였다.

마을 공간 이미지를 구체화한 초기구상으로 햄릿 계획(Plan for Hamlet, 그림 4)<sup>14)</sup>이 있다. 햄릿이란 농촌의 작은 마을을 의미한다. 여기서 마을 공간 이미지를 구체화한 초기의 햄릿계획과 이후 최초 전원 도시 레치워스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본다.

햄릿계획에서 주택들은 마을 공동광장(village green) 주위에 에워싸져 있다. 주민들이 공동광장에서 서로 교류하고, 그곳에서 커뮤니티 의식이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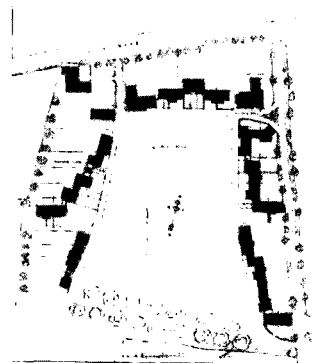


그림 4. 햄릿계획 평면도

12) R. Unwin, 1909, P.5 와 P.321에서 작성.  
13) R. Unwin, 1901 p. 92.

14) 1898년경의 설계라고 한다. 실현되지 않았다.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Barry Parker & Raymond Unwin Architects, 1980, pp22-23.

되는 것을 희망했다. 또 마을 공동광장 주위에 여러 규모의 주택을 배치하여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같은 장소에 함께 살 수 있도록 고안했다. 즉 건축면적을 작은 것은 42 m<sup>2</sup>로부터 큰 것은 360 m<sup>2</sup>범위이며, 부지면적은 177 m<sup>2</sup>로부터 1,330 m<sup>2</sup>의 폭을 두어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거주 할 수 있게 했다.

햄릿계획은 부정형 부지 속에 주택을 여러 방향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언윈이 여기서 사용한 경관 설계방법은 변화만을 지향한 것이 아니었다. 마을 공동광장(village green), 북동모서리에 위치하는 집회장, 수목과 전통적인 주택 디자인 등이 다양하고 변화가 풍부한 경관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통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을 공동광장 주위에 주택을 에워싸 배치하여 닫힌 느낌을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남쪽면에 수목과 함께 끌어오는 전망을 확보하여 개방감을 연출했다. 소위 픽처레스크한 경관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햄릿계획에서 언윈이 의도한 것은 공동광장, 주택의 에워쌈, 낮은 지구 건폐율 등으로 '전원적 소공간'의 연출이었다. 이 전원적 소공간 계획은 주요한 공간장치로서 의미를 갖어 변용된 형태로 레치위스, 햄스테드 전원교외내 여러 장소에 계속 계획되었다. 최초로 실현한 예가 레치위스의 Birds Hill Estate였다. Birds Hill Estate<그림 5>는 부지가 큰 활 모양을 그려 달리는 도로로 향해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다. 그 경사지에 15채의 주택이 세워지고 있으며, 그 안에 5채는 컬데삭 도로를 둘러싸고, 5채는 녹지를 둘러싸도록 배치되어 있다. 지구의 안길이는 동쪽으로 공업지구를 마주하면서 꽤 깊지만, 그러나 세가로로 이분하기에는 얕다. 그래서 안길이가 있는 토지를 유효히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광장과 컬데삭이 동시에 설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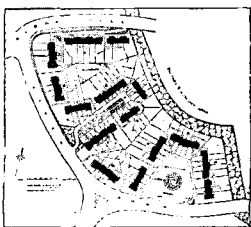


그림 5. Birds Hill estate, 레치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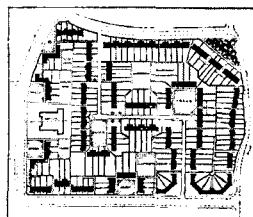


그림 6. Pixmore Hill estate, 레치위스

이 가구는 이른 시기에 공동광장, 컬데삭이 건설된 장소로서 영국 근대주택지 계획역사에 빛나는 곳이다. 파커와 언윈의 손으로 1905년에 설계되어 그들의 초기 디자인 언어를 잘 반영한 곳이기도 하다. 이외에 레치위스에는 파커와 언윈이 설계한(1905-6년) 이스트 홀 그린, 웨스트 홀 그린이라는 공동광장(village green)이 있다. 특히 남쪽에서 공동광장을 넘어서 보이는 웨스트 홀 그린의 광경은 잔디와 수목의 초록, 러프케스트의 흰 벽, 그 위에 벽돌색의 지붕 모두 잘 조화하고 있어서 훌륭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초기 햄릿계획이나 레치위스에서 언윈은 마을의 공간 질서를 주택의 그룹핑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 각 개인들은 자택의 건설에 있어, 이웃의 주택으로부터 독립하여 있음과 이웃의 집과 다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단지 독립주택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아름다움이 태어나지 않는다”<sup>15)</sup>고 하였다.

또 ‘영국의 옛 마을 공동 광장의 주변에 보이는 에워싸는 주택 배치에서 유리한 계획적 시사를 얻을 수 있다’<sup>16)</sup>라고 하면서 단조롭고 아름다움이 부족한 가로경관을 개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주택의 그룹핑’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주택의 그룹핑이 이미 지적인 사회적 소집단을 형성하는 기법인 점과 함께, 변화 있는 주택지 경관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초기 레치위스 계획에서 언윈은 이미 설계 언어로서 공동 광장과 주택의 그룹핑을 확립한 모델을 제안하였지만, 이후 햄스테드 전원교외에서는 이러한 형태들이 보다 폭넓은 유형적 전개를 시도 하고 있다.

#### IV. 교외주택지 계획기법-쿼드앵글의 전개

햄스테드<sup>17)</sup>는 20세기 교외 주택지 계획 중에서 예술힐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

15) R. Unwin 1909, pp 351-353.

16) R. Unwin, 1909, p 351

17) 언윈이 다룬 주요 주택지는 New Earswick(1901년 설계), Letchworth(1903년), Hampstead Garden Suburb(1905년)의 3개이다. 그리고 그의 주택단지의 기법은 전세계에 영향을 끼쳤으며, 후세개발에서 햄스테드(Hampstead)의 수준을 넘은 것은 적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처럼 그의 계획기법은 모두 햄스테드에서 나왔다고 한다. Editor, "Hampstead; the Unique Suburb", Town & Country Planning. Vol.1. 25. No.7. July 1957, p.276.

한 사례로 평가된다. 햄스테드 전원교외는 레치워스 처럼, 에이커당 12호라고 하는 저밀도의 슈퍼블럭(super·block)형 개발이 행해졌다. 햄스테드 전원교외에서 언윈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한 요소로 적당한 건물의 그룹핑을 생각하고 주택의 그룹핑을 추진했으며, 또한 도로와 주택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하여 가로경관을 구성하도록 했다. 여기서는 '도시계획 실천'에 제안되어 있는 언윈의 교외주택지 기법으로 마을의 공간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하여 새로운 형태의 쿼드앵글 모델들로 발전되고, 또한 햄스테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언윈에게 쿼드앵글은 마을내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생활의 표현이었으며, 새로운 가로나 교외에 쿼드앵글을 건설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생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초기 부정형 그린을 둘러싸는 住棟配置를 정형화한 쿼드앵글(quadrangle) 모델들이 보다 고밀도의 햄스테드 전원교외에서 전개되어 있다. 그는 햄스테드 교외주택지에 쿼드앵글을 계획했지만, 영국의 옛 대학촌이나 마을에서 보이는 쿼드앵글이나, 조지(George)조 도시계획의 특징인 스퀘어(square), 지테의 광장 개념의 영향을 받아 정형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언윈의 쿼드앵글에 대한 관심은 옥스퍼드(Oxford)에서 지낸 유년의 기억에서도 근거하여 추측되는데, "옥스퍼드(Oxford)나 캠브리지(Cambridge)의 대학건물(college)은 공동의 중심 건물을 갖고 중정 주위에 세워진 작게 구분 지어진 긴 건물의 집합이다. 그것은 부지가 한정되고 있는 곳에서는 가장 만족하는 긴 건물의 배치인 것이다."<sup>18)</sup>라고 그 자신도 언급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실천」속에서 언윈은 영국의 에딘버러시(Edinburgh)를 예로 하여 "여러가지 스퀘어(square)나 크레센트(crescent)가, 질서 있는 도시계획이 장려함을 보여주고 있다"<sup>19)</sup>라고 적고, 또한 베스(Bath)의 크레센트나 스퀘어에 대한 언급도 있다. 거기에서 그가 조지조의 square, circus, crescent를 참조하여, 초기의 부정형 그린을 둘러싸는 住棟配置를 정형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형화의 단

서는 이미 레치워스의 픽스모어힐(Pixmorehill, Letchworth, 1905-10)<그림 6>에서도 볼 수 있다. 픽스모어힐에서는 직선도로의 종점에 장방형 그린을 배치되고, 외곽을 따라 주택이 규칙적으로 한 줄로 세워지고 있다.

언윈은 지테의 「광장」 개념에 영향을 받아, 광장은 둘러싸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레치워스의 여러 예에서 볼수 있듯이 그린을 「광장」으로 표현 할 수가 없었다. 당시 법규로는 모서리 부분의 주택을 제거하지 않고, 쿼드앵글이나 쿼드앵글의 일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햄스테드 전원교외법(1906년 8월에 인가)에 따라, 중정 모서리부분을 닫고 완전히 에워 채우는 쿼드앵글이 계획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언윈은 컬데삭도로와 쿼드앵글을 조합한 여러 住棟配置 모델들을 고안할 수 있었다.

여기서 쿼드앵글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시계획의 실천」에 수록된 모델도 모델도들은<sup>20)</sup>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그리고 1909년의 햄스테드 전원교외의 기본계획(master plan)과 대조하였다. 그 결과 모델들은 크게 도로유형에 따라 상관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7>.

첫째 유형은 컬데삭 도로에 여러가지 住棟이 배치되는 것으로, 햄스테드에는 컬데삭 도로를이용한 '쿼드앵글'이 여러 곳에 있다. 대개 클로즈(close)란 명칭을 붙이고 있다. '클로즈'란 웨일즈의 Vicar Close와 같은 좁은 경내를 지칭하는 말이다. 언윈은 그러한 중세의 변화기를 연상시키기 위해 햄스테드 전원교외의 컬데삭 도로에서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대개 폭이 좁고 길지만, 그림처럼 폭이 넓고 앞뜰을 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햄스테드에는 이러한 유형의 '쿼드앵글'이 여러 곳 있다.

컬데삭 도로의 종점에 정형화된 쿼드앵글이 배치예도 있다. 베리 스코트가 설계한 독신 여성용 주택 'Waterlow Court' <그림 7>와 언윈이 설계한 노인 전용주택 The Orchard 이다. 이러한 자선 시설에 대학(college)이나 양로원의 전통적 평면이 계획되었다.

18) W. L. Creese, ed., The Legacy of Raymond Unwin; A Human Pattern for Panning, The MIT Press, 1967., p.57.

19) R. Unwin, Town Planning in Practice, pp.72-79.

20) R. Unwin, Town Planning in Practice, pp.330-357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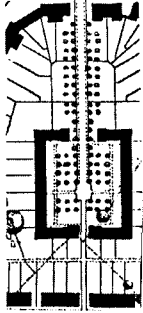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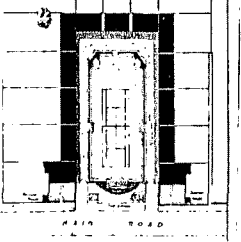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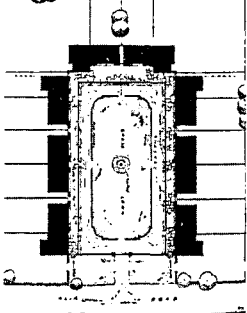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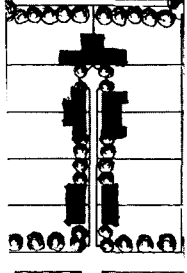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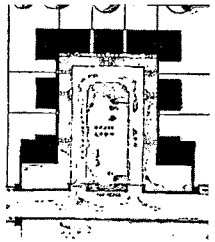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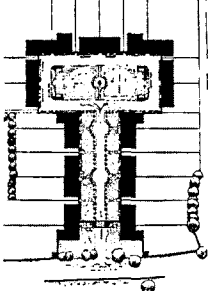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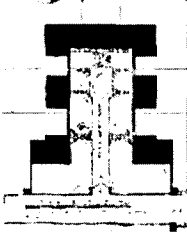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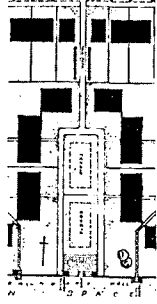
Cul-de-sac	Loop	Cul-de-sac + Loop
 <p data-bbox="271 672 414 718">The Orchard Waterlow Court</p>	 <p data-bbox="606 672 765 718">Litchfield Square Lucas Square</p>	 <p data-bbox="976 680 1072 707">Heathcroft</p>
 <p data-bbox="271 1051 414 1097">Constable Close Meadway Close</p>	 <p data-bbox="620 1062 751 1089">Norland Close</p>	 <p data-bbox="957 1051 1100 1097">Reynolds Close Asmunds Hill</p>
 <p data-bbox="285 1433 400 1499">Romey Close Wyldes Close Hill Close</p>		 <p data-bbox="963 1445 1086 1491">Linnell Close Turner Close</p>

그림 7. 언윈에 의한 도로-퀴드앵글의 상관 모델

Waterlow Court는 자활해야 하는 여성을 위한 주동으로 Hampstead Way에서 서쪽으로 연장되는 컬데삭 도로의 하나인 Heath Close의 종점에 세워지고 있고, 도로의 축에 대해 대칭적으로 평면·입면이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The Orchard는 Hampstead Way에 면하여 배치한 街區는 도로축에 대해 평면 입면이 대칭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두번째 유형의 퀴드앵글은 그린주위에 환상도로가 둘러싸이고, 그 세 방면에 住棟이 배치되는 것으로 빌리지·그린을 둘러싸는 住棟配置가 조지조의 스퀘어(square)의 영향을 받아 정형화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러한 예로 Litchfield Square<그림 7>는 세면이 주동에 의해 직사각형으로 에워싸고, 도로축에 대응

된 연립주택이 모서리 부분을 만든 다음 직각방향으로 배치했다. 또한 정면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10호의 주택이 3호연립, 2호연립주택으로 그룹핑되어 에워쌈을 보여준다. 이 에워쌈은 도로에 대해 열린 중정을 형성하고 있다.

또 다른 예(Norland Close 그림 7)로 띠 모양의 연속주동 대신에 2호 연립주택으로 에워싼 세면이 직사각형을 형성하는 형태도 보인다. 여기서는 주동 건물을 대신하여 주택과 주택을 연결하는 벽이 중정 측 파사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이 앞과 뒤 2개의 공간적 대립을 유지하면서 중정의 이미지를 한정하고 있다. 조지조의 스쿼어가 평탄한 벽돌 벽에 의해 지붕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에 비해, 햄스테드에서는 주동군이 토착적 양식으로 만들어지고, 베이윈도우, 박공지붕, 연돌에 의해 입면이 복잡하게 분절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번째 유형은 컬데삭 도로 종점에 환상도로가 둘러싸이고 그 세 방면에 住棟이 배치되는 것이다. Reynolds Close<그림 7>에서는 도로 옆에 2호 연립주택과 벽 L자형으로 배치하여 도로에 대해 후퇴하면서 작은 광장을 만들어 접근로의 도입부를 만들어 내고 입구를 형성한다. 또한 6호의 주택은 컬데삭을 사이에 두어 서로 마주 보게 한 다음 컬데삭을 지나 가면 2호 연립 주택이 세면을 에워쌈으로 직사각형의 중정에 도달하고 환상도로가 있다. 이것은 각 주택들을 연결하는 벽이 에워쌈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도로에서 훨씬 깊게 끌어들임으로서 안쪽 공간을 한층 더 私的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Linnell Close, Turner Close도 유사한 모습이지만, 가로쪽에 면한 주택들과 보다 컬데삭과 환상도로로 내부에까지 깊숙하게 발전시킨 가구와의 대비하고 있

다. 그린중앙으로 컬데삭도로가 통하고, 그 세방면에 2호 연립주택이 배치되면서 街區내 안쪽부를 적극 개발하여, 무질서한 뒷마당을 질서 있는 앞마당으로 치환하는 방법으로서 햄스테드 전원교외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교외주택지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이러한 예 중에서 더욱 街區의 안쪽부를 개선한 예로 햄스테드의 Asmunds Hill<그림 8>은 띠 모양으로 연속된 일련의 주택들 사이에 골목길이 곡선 모양을 나타낸다. 6호와 4호로 그룹핑된 주택이 컬데삭의 양쪽으로 나란하게 띠 모양을 연속하면서 분단된 중정을 보여주고, 잇따라서 양쪽으로 4호의 주택이 나타나고, 이는 세 면이 막힌 직사각형을 형성한다. 여기서도 파사드에 연속성을 주는 벽이 골목길에 면한 앞과 뒤 2개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뒷면은 통행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와 같이 공동광장(village green)이나 컬데삭의 주위로 주택을 집합하는 쿼드앵글(quadrangle)의 형태는 한 번 정의되면, 여러 가지로 변화 있게 계획할 수 있으며, 햄스테드는 이러한 구성으로 형태화에 관한 유형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언원이 구상하였던 공동광장을 에워싼 주택배치 계획기법이 착안된 배경으로 마을에서 생활과 공간에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또 그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교외주택지의 모습으로 마을을 상징하고 있었던 지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마을 내 중요한 생활 공간인 공동광장(village green)이 초기 부정형 공동광장을 둘러싸는 住棟 配置를 시작으로 정형화해 나가면서 장방형 공동광장이 배치되고, 그 외곽을 따라 주동이 규칙적으로 세워지는 도시형 쿼드앵글(quadrangle)으로 발전되는 전개과정을 살펴 보았다. 언원에게 쿼드앵글은 촌락 내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생활의 표현이었으며, 새로운 가로나 교외에 쿼드앵글을 건설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생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는 그의 주저서 ‘도시계획의 실천’에서 제안된 여러 실례들을 독해하면서, 레치워스, 햄스테드 전원도시에서 적용되어 있는 여러 쿼드앵글의 모델의 해석을 통해 그의 교외 주택지계획의 한 특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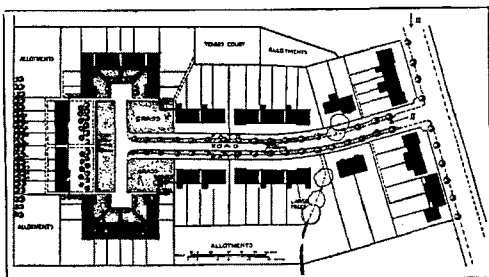


그림 8. 햄스테드의 Asmunds Hill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 쿼드앵글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도로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은 컬데삭 도로에 주동이 배치되는 것으로, 대개 클로즈(close)란 명칭을 붙이고 있다. '클로즈'란 웨일즈의 Vicar Close와 같은 좁은 경내를 지칭하며, 햄스테드 전원 도시의 컬데삭 도로에서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대개 폭이 좁고 길지만, 폭이 넓고 앞 뜰을 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 전용주동 The Orchard, 독신 근로 여성용 주동 Waterlow Court처럼 컬데삭 도로의 종점에 정형화된 쿼드앵글이 배치 예도 있다.

두번째 유형의 쿼드앵글은 그린주위에 루프가 둘러싸이고, 그 세 방면에 주동이 배치되는 것으로 빌리지·그린을 둘러싸는 주동배치가 조지조의 스퀘어(square)의 영향을 받아 정형화된 것이다. 여기서는 주동건물을 대신하여 주택과 주택을 연결하는 벽이 중정측 파사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이 앞과 뒤 2개의 공간적 대립을 유지하고, 또한 중정의 이미지를 한정하고 있다.

세번째 유형은 컬데삭 도로 종점에 루프가 둘러싸이고 그 세 방면에 住棟이 배치되는 것이다. 도로에 대해 약간 후퇴하면서 작은 광장을 만들어 접근로의 도입부를 만들어 내고 입구를 형성한다. 또한 6호정도의 주택들이 컬데삭을 사이에 두어 서로 마주 보게 한 다음 컬데삭을 지나가면 2호 연립 주택이 세면을 에워싸므로 직사각형의 중정에 도달하고 루프가 있다. 이것은 각 주택들을 연결하는 벽이 에워싸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도로에서 훨씬 깊게 끌어들이므로 안쪽 공간을 한층 私的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광장(village green)이나 컬데삭(골목길)의 주위로 주택을 집합화 하는 쿼드앵글(quadrangle)의 형태는 한 번 정의되면, 여러 가지로 변화 있게 계획 할 수 있다. 그리고 햄스테드는 이러한 구성으로 형태화에 관한 유형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워싼 주택배치는 사회적 소집단을 형성하는 커뮤니티 계획 기법으로 공동광장을 둘러싸는 타입으로서 발생하여, close, 컬데삭으로 일반화하면서, 다양한 유형적 전개를 보이고 있다. 언윈이 바람직한 공간, 바람직한 생활로서 그린 것은 빅토리아(Victoria)시대의 대도시 주변에 점재하는 마을들의 공간이며, 또한 거기서 경영되는 생활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을의 계획으로서 이미 높은 평가를 얻었던 햄릿이나 마을의 빌리지 그린에서 설계언어로서 공동 광장을 배워 레치워스, 햄스테드 전원교외에서 실천했다. 또한 공동 광장, 주택의 그룹핑을 확립하고자 공동 광장과 컬데삭 형태의 가로를 단지내부에 도입하여 주택을 그룹핑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얻기 위해 모델 구성함을 알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1. Ashworth, G.(1973), Encyclopedia of Planning. Barie & Jenkins, pp.111-112.
2. Cherry, G. E.(1988), Cities and Plans, Edward Arnold Press.
3. Cherry, G. E.(1974), The Evolution of British Town Planning, Leonard Hill Press.
4. Creese, W. L.(1966), The Search for Environment; the Garden City Before and After, New Haven.
5. Creese, W. L. ed.(1967), The Legacy of Raymond Unwin; A Human Pattern for Panning, The MIT Press.
6. Creese, W. L. ed.(1967), "Nothing Gained by Overcrowding" pp.109-126, The Legacy of Raymond Unwin; A Human Pattern for Panning, The MIT Press.
7. Miller, M.(1981), "Raymond Unwin 1863-1940,"in G. E. Cherry, ed., Pioneers in British Planning, The Architectural Press.
8. Jackson, A. A.(1973), Semi-detached London, George Allen & Unwin.
9. Kostof, Spiro(1991). The City Shaped. London: Thames and Hudson.
10. Unwin, R.(1994), Town Planning in Practic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1. Unwin, R.(1901), The Art of Building a Home.
12. 西山康雄(1992), Unwin의住宅地計劃を讀む,彰國社.

(接受: 2004. 3. 16)